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양 연 숙**

Yang, Yeon Suk

조 북 희***

Cho, Bok H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nfant child care experience,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mother/child factors, is associated with attachment security. Participants were forty 12-to 18-month-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Infants were observed in the Strange Situation to assess the pattern of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bservational Ratings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 was used to assess the caregiving environment. Mothers were interviewed with the questionnaires and observed in the laboratory "living room".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maternal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 and of stability of care on attachment security and on insecure/avoidanc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revealed that infants were more likely to be secure when high maternal sensitivity/responsiveness was combined with good quality child care, non-maternal care initiated prior to six months of age, or care by close relatives.

* 본 논문은 2000년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혜전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교수

I. 서론

일하는 어머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의 초기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와의 격리 및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칠 '위험 요소'에 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생의 초기 형성한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의 초석이 된다는 애착 이론에 의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아와 어머니가 1차적 결속을 맺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양육상황에서 어떠한 유형의 결속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로 인해 영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주어지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Belsky, 1986; Belsky & Rovine, 1988; Lamb & Sternberg, 1990)은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에 주 20시간 이상의 타인양육을 받을 때 그 경험이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와 상반된 주장들(Clark-Stewart, 198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Phillips & Howes, 1987)도 상당수 있어서,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생의 초기 어머니와 격리되어 타인양육되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격리 및 타인양육의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 자신의 특성, 어머니 및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가 불안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와의 반복되는 격리에 대한 영아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격리 특성(격리시

간, 빈도, 격리에 대한 예측), 어머니 부재 동안 영아가 경험하는 타인양육 특성(타인양육의 질, 시작시기, 유형, 안정성), 영아 자신의 특성(성, 기질), 그리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중재되고 이 특성들간에는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Jaeger & Weinraub, 1990). 이에 본 연구는 격리 및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 모델에서 벗어나 영아 자신의 특성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고자 한다.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영아 특성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격리 및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초기에, 장시간,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격리가 어머니의 부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어머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여 애착 형성에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Bowlby, 1973; Belsky, 1986; Lamb & Sternberg, 1990)과 함께 타인양육 특성이 영아의 격리에 대한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Chase-Landale & Owen, 1987; Phillips, McCartney, Scarr & Howes, 1987). 특히 타인양육의 안정성(Clarke-Stewart, 1987); Cummings, 1980)과 타인양육자의 민감성(Howes, Galinsky, Kontos, 1998)이 강조되고 있다.

격리 및 타인양육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개인차 또한 영아-어머니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격리 상황에서 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며 상대적으로 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며(Belsky & Rovine, 198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영아의 기질과 애착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보고되고 있다(Goldsmith & Alansky, 1987; Vaughn et al., 1992).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 - 어머니 애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양육이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Isabella, 1993; Kochanska, 1998, Jaeger & Weinraub, 1990). 국내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며,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순, 1989; 박응임, 1994; 장미자, 1998).

본 연구는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생의 초기 타인양육 상황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작용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영아 - 어머니 관계 형성과 영아발달에 바람직한 어머니 및 타인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특성 및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효과 가설로서 (1) 초기, 광범위하고, 불안정하며, 질이 빈약한 타인양육을 받거나, (2) 까다로운 기질을 지니고, 남아인 경우, (3)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빈약할 때 이러한 특성이 영아의 애착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 효과 가설은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이 어머니 및 아동의 여러 측면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한 측면은 많은 양의 타인양육, 빈약한 질, 양육자의 교체 빈도가 영아가 지닌 다른 위험(예: 까다로운 기질, 남아일 때)과 결합할 때, 또한 어머니가 영아에 대하여 덜 민감하고 덜 반응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에 거주할 때 불안 애착의 가능성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상호작용 가설은 가족 혹은 영아의 위험이 높을 때(예: 반응적이지 않는 양육, 까다로운 기질), 타인양육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양질로 시작된다면, 타인양육이 어머니 - 영아의 안정 애착에 보상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은 어떠한가?
2.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1.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및 어머니 특성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2.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및 어머니 특성간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주당 20시간 이상 타

인양육을 받고 있는 12 - 18개월 영아 40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이다. 연구대상 영아는 정상분만아로서 다양한 타인 양육 형태

<표 1> 연구대상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영아 특성	성별	남아	19(47.5)	격리	격리시간 40시간 미만	8(20.0)
		여아	21(52.5)		40 - 60시간 미만	16(40.0)
	출생순위	첫째	30(75.0)		60시간 이상	16(40.0)
		둘째이하	10(25.0)	및	격리규칙성	규칙적
연령	20대	19(47.5)	불규칙적		13(32.5)	
	30대	21(52.5)	타인양육	타인양육 시작시기	출생후 6개월 이전	14(35.0)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9(22.5)	6개월 이후	19(47.5)
		대졸		25(62.5)	6개월 이후	7(17.5)
		대학원졸	6(15.0)	타인양육 유형	혈연	21(52.5)
특성	직업	전문직	16(40.0)		비혈연	19(47.5)
		사무직	15(37.5)	타인양육 안정성	0회	22(55.0)
		판매서비스직	6(15.0)		1회	10(25.0)
		기타	3(7.5)		2회 이상	8(20.0)

(조부모,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양육 그리고 가정타인양육 및 기관타인양육)에서 현재의 타인양육자에게 2개월 이상 양육받고 있는 영아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평균연령은 15.8개월(SD=2.2)이었으며, 영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일반적 특성과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1)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Ainsworth(1978)에 의하여 애착 제어 체계에 대한 명백한 준거를 가지고 개발된 낯선상황을 실시하였다. 낯선상황은 3분짜리 에피소드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피소드는 영아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애착 인물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을 조직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양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경희대학교 아동연구

센터의 실험실을 사용하였으며 CCD 카메라를 관찰실에서 조작하여 영아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를 이동하며 방안의 상황을 촬영하였다. 애착유형은 두 번의 재결합 에피소드(에피소드 5와 8)에 있어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지표가 되는 접근과 접촉추구행동, 접촉유지행동, 회피행동, 저항행동 4개의 변인을 7점 척도로 평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Ainsworth 등(1978)의 준거에 따라 안정 애착(B), 불안회피 애착(A), 불안저항 애착(C)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자와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7점 척도로 평정된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 변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변인에서 .85 - .97의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애착 유형 분류에서는 98%의 일치를 나타내었다. 이후 애착 분류는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초기 10개의 사례에 대한 재검사신뢰도는

각 행동변인에 대해서 .82 - .96이었으며, 애착 유형 분류에서는 100% 일치하였다.

2)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타인양육의 질은 다양한 타인양육 유형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양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NICHD 연구(1996)에서 개발된 양육환경 관찰 척도(Observation Record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양육환경 관찰 척도는 기존의 양육환경 척도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척도들이 기관보육 시설(예 :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이나 가정보육시설(예 : Family Day Care Rating Scale : FDCRS) 등 특정 유형에서 양육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하는데 반해 조부모, 혈연, 비혈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육에서부터 가정 및 기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까지 다양한 타인양육 유형에서 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둘째, 양육환경 관찰 척도는 교실 전체의 환경적 측면보다는 특정 아동과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양육환경의 질을 긍정적 양육행동의 빈도(행동척도)와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평정(질적 평정)을 통해 측정한다.

타인양육의 질 관찰은 타인양육 장소를 방문하여 영아와 타인양육자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관찰은 10분씩 4번의 행동관찰과 마지막 4분의 질적 평정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2주 이내의 기간 안에 4회 실시하게 되어 있다. 관찰자는 양육자가 영아에게 보이는 행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양육행동 관찰척도에 기초하여 각 10분마다 30초 관찰과 30초 기록을 반복하며, 그 동안의 관찰에 기초하여 양육의 질을 4점 척도로 평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양연숙, 2000 참조). 1, 2

차 관찰은 오전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어머니가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2명) 오후에 관찰하였다. 각 영아당 관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5.37시간(SD=1.32)이었다.

타인양육의 질은 긍정적 양육 행동과 긍정적 양육의 질로 평정된다. 긍정적 양육의 행동은 관찰된 양육행동 중 긍정적 행동(공유된 긍정적 애정+긍정적 신체 접촉), 반응적 행동(음성에 대한 반응+영아 행동 촉진) 그리고 행동 자극하기(인지발달 자극+사회성 발달 자극+질문하기+그외 이야기하기 + 책읽어주기)의 빈도를 합하여 산출한다. 긍정적 양육의 질은 일상적 및 고통 상황에서의 민감성 및 반응성, 긍정적 관심, 인지발달 자극, 분리(역채점), 무미건조한 정서반응(역채점) 각 영역마다 4점척도를 이용하여 질적 평정된 점수를 합해하여 산출한다. 타인양육의 질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타인양육 상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실제 타인양육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해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행동평정에서는 비디오인 경우 .77 - .90, 현장인 경우 .62 - .87이었으며, 질적 평정에서는 비디오인 경우 .67 - .85, 현장인 경우 .71 - .8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격리 시간, 격리빈도, 격리 규칙성과 타인양육 시작 시기, 타인양육유형, 타인양육의 안정성이 측정되었다. 격리특성은 한주를 단위로 하여 주당 격리시간, 격리횟수가 합산되었고, 격리가 이루어지는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격리 요일이나 시간 둘 중 하나 이상이 불규칙한 경우 1, 격리 요일과 시간이 규칙적인 경우 2로 범주화하였다.

타인양육의 특성 중 타인양육 시작시기는 출생 후 바로 시작한 경우 1, 6개월 이전에 시작한 경우 2, 6개월 이후 시작한 경우 3으로 범

주화하였다. 현재 영아가 받고 있는 타인양육의 유형은 비혈연(이웃아주머니, 일하시는 분, 보육교사)에 의한 양육을 1, 혈연(친할머니, 외할머니, 친척)에 의한 양육을 2로 범주화하였다. 타인양육의 안정성은 현재까지의 타인양육자 변경 횟수로 측정하였다.

3)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Kochanska(1998)가 고안한 에피소드의 시간과 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낯선 상황을 마친 어머니와 영아는 다른 실험실로 이동하며, 각 5분씩 네 가지 상황에 놓여진다: 에피소드 1. 어머니는 영아에게 간식을 먹인다. 에피소드 2. 어머니는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와 함께 논다. 에피소드 3. 어머니는 질문지를 작성한다. 에피소드 4. 어머니는 영아가 놀잇감을 정리하도록 한다. 실험실은 네모난 방의 중앙에 1.5×2m의 카펫을 깔고, 낮은 테이블을 준비한 후 어린이용 쇼파, 커튼, 그림 등으로 일상적인 공간처럼 꾸며졌으며, 한쪽 벽에는 여러 종류의 과자, 음료, 접시와 컵을 배치하였다.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가 보내는 고통, 신호, 요구에 대하여 어머니가 보이는 즉각적이고 민감하면서도 진지하고, 수용적이며, 정서적으로 유용성을 지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Kochanska, 1998).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평정되었다. 첫째,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중에서 '영아관련 사건'을 1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영아관련 사건이란 영아가 시도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로서 어머니에게 신호나 반응을 요구하는 특정 사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고통, 주의를 끌려는 시도, 영향력 시도, 도구적 도움 요구, 생리적 신호를 영아관련 사

건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둘째, 영아관련 사건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각각의 반응을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행동은 빈약한, 보통, 좋은, 뛰어난으로 평정되었다. 각 반응은 빈약한 -2, 보통 -1, 좋은 +1, 뛰어난 +2로 점수화하였다. 셋째, 같은 범주에 속한 영아관련 사건에 부여된 점수가 합해진 후 각 범주별 사건수에 의해 나누어져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 점수가 산출되었다.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은 연구자와 분석자가 함께 비디오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78 - .81이었으며, 각 사건에 대한 평정은 .84 - .8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은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초기 10개 사례에 대한 재검사 신뢰도는 아동관련 사건에서 .74 - .85, 각 사건에 대한 평정에서 .83 - .91이었다.

4) 영아 특성에 관한 질문지

영아 특성은 성과 기질로서,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llard, McDevitt와 Carey(1984)의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를 최영희(198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세에서 3세까지의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하여 측정하는 질문지로 9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문항 수는 97개로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 유형 분류시 이용되는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5개 영역 55문항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영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상호작용적 영향력과 선택확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낮선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영아의 행동을 기초로 Ainsworth 등(1978)의 애착 분류 준거에 따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을 분류한 결과, 전체 40명 중 안정 애착이 25명(63%), 불안회피 애착이 9명(23%), 불안저항 애착이 6명(1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낮선 상황에서 애착 유형을 분류한 국내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제시된 연구들은 중류층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Ainsworth 등(1978)과 나유미(1997)의 연구를 제외하고 상중하 계층을 모두 포함하거나 취업모, 비취업모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 영아의 애착유형은 다소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외 연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즉, 안정 애착이 가장 많고,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 순이었다.

2.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격리시간·빈도·규칙성, 타인양육의 질·시작시기·유형·안정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 영아의 성·기질)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유형인지 아닌지의 이분적(dichotomous) 성격에 따라 각 애착유형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예측력을 탐색하는 로지스틱

<표 2>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 분포

	N	안정 (B)	불안회피 (A)	불안저항 (C)	비조직 (D)
본 연구	40	63%	22%	15%	-
장미자(1998)	20	65%	25%	10%	0%
최해훈 등(1998)	55	57%	3%	27%	13%
나유미(1997)	41	98%	2%	0%	-
박용임(1994)	55	78%	16%	2%	4%
유효순(1985)	65	55%	29%	15%	-
NICHD 연구(1997)	1153	62%	14%	9%	15%
van Ijzendoorn 등(1992)	1584	67%	21%	12%	-
Belsky와 Rovine(1988)	149	68%	16%	15%	-
Ainsworth 등(1978)	106	66%	22%	12%	-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¹⁾을 실시하였다.

1)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 효과

영아의 안정 애착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수측정치

(Parameter Estimate)의 정적(+) 계수는 독립변수가 각 유형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반면, 부적(-) 계수는 그 가능성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Wald χ^2 는 변인이 갖는 안정 애착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며, odds 변화량²⁾은 안정 애착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을 유의하게

<표 3>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이 영아의 안정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		
	Parameter Estimate	Wald χ^2	Odds 변화량	Parameter Estimate	Wald χ^2	Odds 변화량	Parameter Estimate	Wald χ^2	Odds 변화량
어머니 및 영아특성 :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20.06	4.67*	156.00	-11.54	3.72*	26.00	-9.20	0.54	5.70
영아의 기질	-46.76	2.93	32.00	44.87	2.13	0.00	-43.64	3.41	1.68
영아의 성 ^a	-26.51	3.08	0.01	-4.81	0.08	0.01	-17.67	0.40	0.00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									
긍정적 양육 행동	0.12	1.12	1.13	0.59	3.12	0.56	0.52	0.74	1.68
긍정적 양육의 질	43.35	3.67	113.00	31.97	0.41	13.00	-97.20	3.22	0.00
격리시간	-0.06	0.05	0.96	-1.38	3.53	0.25	0.27	0.13	1.31
격리빈도	3.73	0.61	41.67	9.93	2.63	1.34	-20.31	2.66	0.00
격리의 규칙성 ^b	-23.01	2.83	0.00	15.47	1.30	0.97	56.73	1.82	0.00
타인양육 시작시기 ^c	15.75	2.37	109.00	7.32	1.13	0.86	4.50	0.05	45.00
타인양육 유형 ^d	-3.64	0.10	0.03	-18.66	2.40	0.04	12.71	0.12	0.01
타인양육의 안정성	1.16	0.02	3.19	-28.78	3.82*	1.17	2.45	0.01	11.55
상수		-445.500			204.800			-502.600	
-2 Log L		105.850			85.306			67.633	
χ^2		44.552***			84.514***			67.133***	

* $p < .05$ *** $p < .001$

^a 1=남아, 2=영아 ^b 1=불규칙적, 2=규칙적 ^c 1=0개월, 2=6개월이전, 3=6개월이후 ^d 1=비혈연, 2=혈연

1)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란 종속변수가 범주/명명 척도로서 이분화되어 있고, 독립변수에 명명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은 정성적인 척도와 등간척도가 섞여 있는 경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안정 애착 대 불안 애착집단, 회피 애착 대 안정/불안회피 애착, 혹은 불안저항 애착 대 안정/불안회피 애착 집단의 이분적 성격을 지니도록 재구성되었으며, 이때 이분화된 종속변인 중 하나의 속성을 선택하는 독립

변인의 선택확률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예측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 Odds 변화량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대값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기대값의 비(ratio)이다. 예를들어 Odds 변화량이 5라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대성이 일어나지 않을 기대성보다 5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dds 변화량이 1보다 클수록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로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Wald $\chi^2=4.67$, $p<.05$). 즉,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나 신호에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일수록 영아의 안정애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Odds 변화량 참조). 영아의 불안회피 애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의 안정성으로서,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Wald $\chi^2=3.72$, $p<.05$; Wald $\chi^2=3.82$, $p<.05$). 즉,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빈약하고, 타인양육자의 잦은 변경이 불안회피 애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아의 불안저항 애착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없었다.

2)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1) 영아의 안정애착

영아의 안정 애착에 대한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의 질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을 의미 있게 예측하였다.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나 타인양육의 질 그리고 영아의 기질

과 같은 연속변인을 범주화³⁾하여 안정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 영아의 안정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 <표 4>에는 예측되는 안정 애착의 비율(p)과 표준오차(SE) 그리고 빈도(n)가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와 타인양육자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할 때 영아는 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낮은 경우 양질의 타인양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안정 애착을 .15로 예측하여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에는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기초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상호작용

3) 애착 유형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연속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되었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의 질(긍정적 양육 행동, 긍정적 양육의 질)은 4분편차를 이용하여 상위 4분위에 있는 대상은 '높은', 하위 4분위에 있는 대상은 '낮은' 그리고 50%에 해당되는 중간 대상은 '중간'으로 범주화되었다.

영아의 기질은 Carey와 McDevitt(1978)의 기준에 따라 순한 기질, 중간 기질,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되었다.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개 기질영역에서 4개 이상의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작고, 한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더라도 그 차이가 1 표준편차(SD)를 넘지 않는 경우 순한 기질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질영역 중 반응강도를 반드시 포함한 4개 이상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되, 2개 이상 영역의 점수가 1 표준편차(SD)보다 큰 경우를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를 중간 기질로 분류하였다.

<표 4> 영아의 안정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의 질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긍정적 양육의 질								
	낮음			중간			높음		
	<i>p</i>	SE	<i>n</i>	<i>p</i>	SE	<i>n</i>	<i>p</i>	SE	<i>n</i>
낮음	.00	.00	(3)	.00	.00	(5)	.15	.00	(2)
중간	.69	.13	(5)	.79	.08	(11)	.99	.00	(4)
높음	.79	.10	(2)	.86	.06	(4)	.99	.00	(4)

용의 질이 중간 이상인 경우 양질의 타인양육을 받을 때 안정 애착 가능성이 .15에서 .99로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빈약하지만 양다면, 긍정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가 어머니와의 안정 애착 형성에 보상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영아의 불안회피 애착

영아의 불안회피 애착에 대한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격리시간,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격리의 규칙성,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타인양육 시작시기,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타인양육의 유형

〈표 5〉 영아의 불안회피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격리시간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격리시간								
	45시간이하			45 - 65시간			65시간이상		
	p	SE	n	p	SE	n	p	SE	n
낮음	.82	.10	(4)	.78	.08	(5)	.03	.01	(2)
중간	.02	.00	(4)	.03	.01	(10)	.01	.08	(5)
높음	.15	.10	(2)	.01	.01	(5)	.01	.02	(3)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격리의 규칙성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격리의 규칙성					
	불규칙적			규칙적		
	p	SE	n	p	SE	n
낮음	.70	.12	(5)	.50	.14	(5)
중간	.09	.07	(4)	.04	.03	(16)
높음	.28	.13	(4)	.14	.08	(6)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타인양육 시작시기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 시작시기								
	0개월			6개월이전			6개월이후		
	p	SE	n	p	SE	n	p	SE	n
낮음	.50	.14	(5)	.61	.16	(3)	.83	.12	(2)
중간	.03	.03	(6)	.05	.03	(12)	.13	.10	(2)
높음	.11	.08	(3)	.15	.10	(4)	.36	.17	(6)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타인양육 유형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 유형					
	혈연			비혈연		
	p	SE	n	p	SE	n
낮음	.60	.15	(5)	.99	.02	(5)
중간	.02	.13	(12)	.14	.09	(7)
높음	.00	.02	(4)	.00	.09	(7)

영아의 기질 × 격리시간

영아의 기질	격리시간								
	45시간이하			45 - 65시간			65시간이상		
	p	SE	n	p	SE	n	p	SE	n
순한 기질	.20	.12	(2)	.10	.07	(6)	.01	.00	(2)
중간 기질	.38	.10	(6)	.21	.07	(8)	.01	.02	(6)
까다로운 기질	.75	.12	(2)	.55	.13	(6)	.01	.01	(2)

그리고 영아의 기질×격리시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범주화하여 불안회피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표 5).

영아의 불안회피 애착은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격리시간이 65시간 이하이며(.78, .82), 격리가 불규칙으로 발생하고(.70), 타인양육을 시작한 시기가 늦을수록(.50, .61, .83) 그리고 비혈연에게서 타인양육(.99)을 받는 영아가 불안회피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영아의 불안회피 애착은 영아의 기질과 격리시간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이면서 어머니와의 격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45시간 이하와 45 - 65시간의 경우) .75, .55로 불안회피 애착이 높게 예측되었다.

(3) 영아의 불안저항 애착

영아의 불안저항 애착에 대한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 중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 행동과 영아의 기질×긍정적 양육의 질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이들 변인을 범주화하여 불안저항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표 6).

타인양육의 질이 낮은 경우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낮거나(.57), 영아가 중간 기질일 때(.55) 불안저항 애착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즉, 영아가 타인양육자로부터 긍정적이지 않은 양육을 받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민감하고 반응적이지 않거나 영아가 중간기질일 경우 영아는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보다 불안해하고 접촉추구와 함께 저항하는 아가적인 불안저항 애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표 6〉 영아의 불안저항 애착에 대한 선택확률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 행동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긍정적 양육 행동								
	낮음			중간			높음		
	p	SE	n	p	SE	n	p	SE	n
낮음	.57	.08	(3)	.28	.05	(5)	.00	.00	(2)
중간	.48	.08	(5)	.19	.05	(11)	.00	.00	(4)
높음	.00	.00	(2)	.00	.00	(4)	.00	.00	(4)

영아의 기질×긍정적 양육의 질

영아의 기질	긍정적 양육의 질								
	낮음			중간			높음		
	p	SE	n	p	SE	n	p	SE	n
순한 기질	.19	.12	(1)	.06	.06	(8)	.00	.00	(1)
중간 기질	.55	.10	(4)	.30	.07	(11)	.00	.00	(5)
까다로운 기질	.25	.14	(5)	.09	.05	(1)	.00	.00	(4)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63%), ‘불안회피’(23%), 그리고 ‘불안저항’(15%)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을 국내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애착 유형마다 다소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안정 애착이 가장 많고, 불안회피, 불안저항의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주당 20시간 이상 타인양육 되고 있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업모의 경우 상호작용 시간이 적거나 부정적인 훈육 가능성을 통해 영아와의 애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양육환경을 구성하거나(Owen & Cox, 1988; 이영·신은주·나종혜, 1995), 생의 초기 반복되는 격리 경험을 영아가 어머니의 거부로 해석할 수 있다(Jaeger & Weinraub, 1990)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타인양육 경험 그 자체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 집단 내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을 요구한다.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의 안정성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다. 즉,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안정 애착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상호작용의 질이 낮고 타인양육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불안회피 애착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어

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이 무엇보다도 어머니 - 영아 관계를 반영하며,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Isabella, 1993; Kochanska, 1998; 김종순, 1989; 장미자, 1998)과 일치한다. 즉, 영아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지각 및 해석 그리고 반응이 민감하고 적절할수록 영아가 어머니에게 안정 애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이지 못할 때 불안회피 애착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생의 초기 잦은 양육자의 변경은 양육환경의 변화 및 일관성 부족을 가져오고(Clarke-Stewart, 1987), 양육환경의 일관성 부족은 영아가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 애착아의 경우 안정 애착아보다 타인양육 변경 횟수가 많다는 연구결과(Cummings, 1980; Schaclare, 1989)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타인양육자에 의해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아가 어머니로부터의 격리 및 타인양육 경험에 대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양육환경의 일관성이 양육의 질적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 척도임을 제시한다.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이 영아의 애착 형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은 어머니 및 영아 특성과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었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긍정적 타인양육의 질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받는 영아가 양질의 타인양육을 받을수록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대의 경우 불안저항 애착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 시작시기 및 유형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영아는 타인양육 시작시기가 6개월 이후일 때 불안회피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생후 첫해 초기에 시작한 타인양육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시작하는 경우보다 적절하다는 연구결과(Ainsworth 등, 1978; Hoffman, 1989)를 지지하며, 애착 형성시기(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어머니의 부재 즉, 어머니에서 타인양육자로의 변경이 어머니의 빈약한 상호작용의 질과 결합할 경우 영아에게는 보다 거부적으로 해석되어 불안회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낮은 경우 격리시간이 적거나 격리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불안회피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영아의 신호나 욕구에 민감하거나 반응적이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격리가 불규칙한 경우 불안회피 애착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한편, 영아의 특성과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영아의 특성 중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어머니와 격리될 때 불안회피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영아가 중간기질일 때 타인양육의 질이 낮은 경우 불안저항 애착 가능성이 보다 높게 예측되었다. 기질적으로 적응성이 낮고,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며, 낯선 사람이나 장소를 접하면 회피하고, 정서표현이 격렬하며,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양육자에 대한 요구가 많고 양육상황에 적응하는 데 보다 어려움을 지낼 수 있다. 이러한 영아가 날마다 반복되는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로부터의 양육환경의 변화에 까

다로운 기질을 지닌 영아가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적응하여, 어머니의 부재를 보다 거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2. 결론 및 제언

12 - 18개월 사이의 영아와 그들의 양육자(어머니와 타인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아기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 - 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격리 및 타인양육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었다. 이것은 영아와 어머니 관계 형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강력한 요인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타인양육의 질이 낮고, 불규칙적이며, 장시간 이루어지더라도 어머니로부터 양질의 양육을 받는 영아는 불안 애착 형성의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부모이거나 부모가 될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실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과 취업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잦은 타인양육자의 교체는 불안회피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이것은 어머니에서 타인양육자로의 변경이나 타인양육자에서 또 다른 타인양육자로의 변경이 가져오는 양육환경의 변화 및 일관성 부족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영아기에 타인양육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육자를 바꿀 때는 양육자와 부모가 일관성있는 양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었다. 즉, 불규칙한 격리, 빈약한 타인양육의 질, 애착 형성 시기(6개월 이후)에 시작한 타인양육과 비혈연에 의해 양육받는 영아가 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어머니나 영아 자신이 지닌 까다로운 기질과 결합할 때 불안 애착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하나는 부모로 하여금 타인양육이 영아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바람직한 타인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보육제공자 및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보육정보센터나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종 보육관련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지원도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이들 기관 및 매체의 정보 제공 및 지원은 부모들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양질의 타인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영유아 타인양육이 영아 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으로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부모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화가 요구된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직업공유나 파트타임과 같은 사원정책이나 부모휴직제도는 타인양육에 대한 요구와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이 그들의 영

아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장으로 되돌아올 때, 복직과 임금이 확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아의 안정 애착에서 양질의 타인양육이 빈약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을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자를 대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만 하여도 민감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Howes, Galinsky, & Kontos, 1998)를 통해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양육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보육 실시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 그리고 현행 규정에 대한 강화가 요구된다.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의 대부분이 보육기관보다는 가정에서 비형식적으로 돌보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보육 유형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대학, 보육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TV나 잡지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도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표집수가 적고,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해 준 어머니와 타인양육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0명의 연구대상에서 얻은 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애착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 경우마다 사례수가 매우 적어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의 초기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

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격리 및 타인 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상호작용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타인양육 경험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영아가 타인양육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어머니 및 타인 양육환경에 대한 제안을 이끌어내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 능력과 가정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신은주·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3), 165-177.
-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희(1989). 기질 측정의 타당성 조사 연구. *원우총론(숙명여자대학교)*, 7, 137-154.
- 최해훈·이경숙·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 131-14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9.
- Belsky, J., & Rovine, M.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7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Chase-Lansdale, P. L., & Owen, M. T. (1987). Maternal employment in a family context: Effects o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8, 1505-1512.
- Clarke-Stewart, K. A. (1987).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are forms and features: The Chicago Study. In D. A.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Research Monograph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 22-42). Washington, DC: NAEYC.
- Cummings, E. M. (1980).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1-37.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Gottfried, A. E., & Gottfried, A. W. (Eds.)(1988).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Plenum Press.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Howes, C., & Galinsky, E., & Kontos, S. (1998). Child care caregiver sensitivity and attachment. *Social Development, 7*(1), 25-36.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605-621
-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 In searce of process. In K. McCartney(Ed.),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 A social ecology approach*. San Francisco : Jossey-Bass.
- Kochanska, G. (1998).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 fearfulness, and emerging attachment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80-490.
- Lamb, M. E., Sternberg, K. T.(1990). Do you really know how day-care affects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51-3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5), 860-879.
- Owen, M. T., & Cox, M. J. C. (1988). Maternal employmen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 E. Gottfried & A. W. Gottfried (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 Longitudinal research* (pp.85-119). New York : Plenum.
- Phillips, D., & Howes, C. (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 Review of research. In D.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1-20). Washington, DC : NAEYC.
- Phillips, D., McCartney, K., Scarr, S. & Howes, C.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Schachere, K. (1989). Maternal employment during infancy : Family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van Ij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 W. E. (1992). The multiple caretaker paradox. In R. C. Pianta(Ed.), *Beyond the parent : The role of other adults in children's liv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5-24.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Vaughn, B. E., Hinde, J. S.,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63-473.